

# 아프리카에 한국무용 진수 선보인다



하나무용단의 부채춤 공연모습

<김미숙 하나무용단 제공>

## ‘김미숙 하나무용단’ 한국 첫 세이셸 공화국 댄스 비엔날레 참가

‘아프리카에서 선보이는 한국무용의 진수.’ 김미숙 하나무용단(이하 하나 무용단)이 한국 최초로 인도양의 섬나라 세이셸 공화국(Republic Of Seychelles)의 댄스 비엔날레(Biennale de Dance 2017)에 참가한다. 또 9월에는 도쿄에서 공연을 갖고 10월 세이셸에서 열리는 ‘크레올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등 해외무대에서 한국 무용 전령사 역할을 한다.

하나 무용단은 오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세이셸 공화국에서 열리는 ‘2017 댄스 비엔날레’(Biennale de Dance 2017)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한다.

댄스비엔날레는 세이셸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문화교육기관인 국립무용단이 주최하는 국제행사로서 매년 인도양 및 아프리카, 유럽 등 매년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여 문화교류의 장을 펼친다. 하나 무용단은 전통예술진흥재단의 ‘2017 전통 예술 해외진출지원사업’에 선정돼 3000만 원의 항공권을 지원받았다.

이번 댄스비엔날레에서는 8명의 단원들이 진도굿춤, 소고춤, 진쇠춤, 부채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세이셸 대통령과 약 1500명의 관객이 공연에 참석한 가운데 호주,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세이

### 유럽·아프리카 문화교류의 장

### 전통예술진흥재단 3000만원 지원

### 9월엔 한·일 축제 도쿄 행사 참가

셀, 대한민국의 예술단체가 참여한다.

하나 무용단은 지난해부터 한국-세이셸 간의 문화교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올해 3월 하나 무용단과 세이셸 국립무용단 간에 업무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나 무용단과 세이셸이 MOU를 체결한 배경에는 세이셸에서 ‘안과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BE world’의 활약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MOU 체결로 오는 9월에는 세이셸 국립무용단이 천안에서 열리는 ‘천안 흥타령 축제’에 참석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하나 무용단은 댄스비엔날레에 그치지 않고 오는 9월23일 ‘한·일 축제마당 동경행사’에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참가한다.



김미숙 하나무용단장

또, 오는 10월21일부터 약 일주일 간은 세이셸에서 펼쳐지는 ‘크레올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아 참가할 계획이다.

김미숙 하나 무용단장은 “이번 세이셸 댄스 비엔날레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에서 우리 위대한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며 “특히 한류문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도양,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국가에 우리나라 전통예술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차원에서 외교활동을 통해 한국전통 예술 홍보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 무용단은 1999년 창단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이수자 김미숙과 그의 제자 약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제23회 전국전통공연예술경연대회 명인부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한국예술평론가협회 최우수 예술가상을 수상했다. 김미숙 하나 무용단장은 현재 한국체육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중이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프로젝트 국악그룹 ‘온비’ 초청 공연

###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무대… 내일 서석당

이번주 토요일, 전통음악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퓨전 국악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열리는 토요일상설무대에 프로젝트그룹 온비(대표 이연우)를 초청해 ‘국악, 온비에 스피디’를 선보인다.

이날 공연에서는 가야금 병창 ‘님 그린 회포’, ‘동해바다’, 역적 OST ‘같이 어대요’,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가 공연된다. 또 ‘고향의 봄’과 경기민요

‘꼭두각시’를 해금연주로 새롭게 해석해 들려주며 현대적 감각의 창작 국악곡 ‘무엇이 되어’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별주부의 심란한 마음을 현대적으로 풀어 각색한 ‘난감하네’, ‘홀로 아리랑’, ‘풍구타령’ ‘너영나영’, ‘군밤타령’ 등을 연주한다.

‘프로젝트 그룹 온비’는 ‘온 누리에 내린 비’라는 뜻을 가진 팀으로 전통성과 대중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는 지역의 젊은 공연예술단체. 이날 공연에는



국악그룹 ‘온비’

이날 공연에는 이연우, 김현경, 류경빈, 배유경, 이유리, 조가완, 한소리 씨가 출연한다. 문의 062-232-1595.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한 여름밤의 달빛 앙상블

### 광주문화재단

### 내일 담양가사문학관서

### 네번째 풍류 달빛공연

### 소리꾼 이봉근·국악인 이윤아

### 국악 앙상블 ‘탐’ 등 출연



이윤아(왼쪽)와 이봉근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2일 오후 8시 담양 한국가사문학관에서 네 번째 ‘풍류 달빛공연’을 개최한다.

‘한 여름밤의 달빛앙상블’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최근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100% 승률의 사나이’로 유명한 소리꾼 이봉근이 출연한다. 또 ‘너의 목소리가 보여?’ 거미편에서 ‘사과 아가씨’로 출연해 국악과 발라드가 만나는 ‘속대머리’로 화제가 된 국악인 이윤아, 그리고 국악 앙상블 TaM(탐)도 공연에 나선다.

이봉근은 임방울 명창의 단가 ‘추억’을 모티브로 직접 작곡한 곡 ‘추억’을 선보인다. 다음 공연은 ‘적벽대전’을 다른 시각을 재구성해 만든 ‘적벽’, 시나위 형태로 새롭게 구성한 ‘사랑가’를 부른다.

이어 이윤아와 국악앙상블 TaM(탐)이 함께

‘수궁가’ 중 ‘토끼화상을 그리는 대목’을 선보이며, 제주도 민요를 보시노바 느낌을 더해 새롭게 편곡한 ‘너영나영’, 아리랑을 엮어 만든 ‘민요의 향연’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광주MBC ‘우리가락 우리문화’(9월 3일, 9월 10일 오전 8시40분)를 통해 방송된다.

한편 풍류남도나들이 상설프로그램 ‘누가 풍류 처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식영정·환벽당·취가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선비복 체험과 다례체험, 서화체험 등 ‘식영풍류도원’ ‘환벽추구학당’과 ‘환벽책애서’ ▲취가정에서는 ‘취가화전놀이’와 김덕령장군 체험인 ‘나는 김덕령이다’가 진행된다. 모든 체험행사는 무료이며, 현장에서 바로 체험 가능하다. 문의 062-232-2155.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아트그룹 ‘라이브’ 22번째 정기 회원전

### 16일까지 동구 갤러리 D

지난 1994년 순수함과 열정으로 뭉친 조선대 미술대학 서양화과 학생들이 미술 그룹 ‘라이브’를 결성했다. 그해 공동갤러리에서 열린 창립전을 시작으로 ‘미술과 노동’, ‘평범 형식의 무한 도전’, ‘Red on paper’ 등 다양한 주제로 매년 정기 회원전을 열었던 젊은 작가들은 어느덧 나이를 먹고 탄탄한 자기 세계를 구축해 가기 시작했다.

아트그룹 ‘라이브’(회장 김용안)의 22번째 정기 회원전이 오는 16일까지 광주시 동구 갤러리 D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강동권, 김재성, 김종일, 김준모, 문형선, 박용환, 이승일, 장원석, 최정희, 표인부, 한부철씨 등 참여작가는 자신들만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소재와 참신한 기법으로 작업한 작품들을 출품했다.

김용안 작가는 푸른빛의 배경 사이로 새하얀 안개가 산과 나무를 감싸고 있는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조운성 작가의 작품은 무한히 반복되고 복제되는 현 시대를 씨앗이 퍼져나가는 모습으로 표현, 생명력과 에너지의 확산을 보여준다. 문의 062-222-801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용안 작 'Hide'

www.jncbms.co.kr

문화의 역사 숨쉬는 공간

사진으로 보는 문화역사기행

박성천 지음

##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공간

# 사진으로 보는 문화역사기행

문화역사기행은 어제의 역사와 오늘의 삶 그리고 내일의 시간을 기쁨하는 기회이다.

이 책에 수록된 문화역사의 공간들은 우리가 한번쯤은 역사 시간에 들었거나, 드라마나 영화 혹은 문화적 재현을 통해 봤을 직한 장소들이다. 거기에는 절절한 아픔과 통탄의 역사가 스며있기도 했고, 더러는 우리 문화의 진미(眞美)가 오롯이 깃들어 있기도 했다. 책에는 기자의 시각, 작가적 상상력, 인문학자의 사유가 투영돼 있어 역사와 문화를 다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소설가 특유의 감성적 문체와 저널리스트의 눈으로 본 현장감이 겹쳐져 읽는 맛을 더해준다.

“직접 발품을 팔아 보고, 듣고, 체험한 역사는 힘이 있다. 나의 것으로 온전히 체득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역사가 되고 의미 있는 문화가 되기 때문이다.”

소설가이자 광주일보 기자인 저자는 전남대 영문과와 동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문학박사)을 졸업, 2000년 전남일보 신춘 문예에 소설이 당선돼 문단에 나왔으며 2006년 소설 시대 신인상을 수상했다. 다양한 영역에 걸친 글쓰기를 통해 사람과 세상, 문화에 대한 지평을 넓혀가는 인문학자이다.

저자 박성천 | 정가 18,000원 | 224쪽 | 크라운판 | 소프트 | 윌컬러 | 제이앤씨 출판사